

고대 중국 사상에서의 인(仁)의 의미

<23 수능 쌓운 오답률 1위 문항 분석> By Unkicetic

윤리 과목을 내신이든 수능이든 공부해보셨다면 인(仁)이라는 글자를 처음 들어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수년간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보기도 하고, 온라인상으로도 질문을 받으면서 ‘인=유교만이 쓸 수 있는 표현=어질다’ 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작년 수능 쌓운 두 과목에서 모두 오답률 1위 킬러 문항을 낳았습니다. 아래 두 문제는 작년 수능 생운/윤사 오답률 1위 문항입니다.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성인(聖人)의 은혜가 만세에 배풀어져도 사람에게 특별히 치우치지 않는다. 친함이 있으면 어진 자가 아니며, 명성을 추구하여 참된 자기를 잃으면 선비가 아니다.
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이 법(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 ① 갑: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잊어버리고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 ② 갑: 사욕(私欲)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
- ③ 을: 바른 수행으로 만물이 서로 독립하여 존재함을 깨달아야 한다.
- ④ 을: 연기법에 대한 자각을 통해 변하지 않는 자이를 깨달아야 한다.
- ⑤ 갑과 을: 하늘이 부여한 순전한 본성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4.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도(道)는 두루 통(通)하여 만물과 하나를 이룬다. 따라서 흠어짐은 곧 이롭고 이롭음은 곧 어그러짐이다. 진인(眞人)은 만물이 통하여 하나임을 알아 그 자연스런 쓰임에 맡겨 둔다.
을: 도는 낱고 덕(德)은 기르니, 만물이 나타나서 형세[勢]로써 완성된다. 따라서 도를 높이고 덕을 귀하게 여김은 명명하지 않아도 늘 스스로 그러하다[自然].

<보 기>

- ㄱ. 갑: 타고난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물이원체에 도달할 수 없다.
- ㄴ. 을: 제물(齊物)을 통하여 정신의 절대적 자유에 도달한다.
- ㄷ. 을: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으며 성인(聖人)도 어질지 않다.
- ㄹ. 갑과 을: 도는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이면서 만물에 내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생운에서 출제된 2번 문항부터 봅시다. 갑은 장자, 을은 석가모니입니다. 갑을 장자(도가)로 찾았다면 이 문항의 정답은 너무 뻔하게도 1번이라는 것을 기본 개념 인강만 들은 학생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항의 정답률이 ebs i 기준 20%가 나왔고 2번 선지의 선택률이 50%가 넘게 나왔을까요? 갑을 도가가 아닌 유교(공자나 맹자)로 푼다면 이 문항의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학생들이 사상가를 잘못 찾아서 1단원 비킬러 파트가 킬러 파트인 분배 정의, 환경 윤리보다 더 정답률이 낮아졌네요. 작년 수험생들이 갑을 유교 사상가로 생각한 이유는 제시문의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친함이 있으면 어진 자가 아니며’ <<<<< 갑은 어진 자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어질다=인=유교만 사용 가능한 표현 <<< 이 사고 과정에 문제가 있겠네요.

어질다=인은 맞으나, 이를 유교만 사용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인(仁)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어질다 / 2: 차별적 사랑(공자의 유인자 능호인 능오인)

그 중 첫 번째 의미는 유교/도가/묵가 모두 사용 가능한 표현입니다. 仁이라는 한자를 사전에서 찾으면 ‘어질 인’이라 나오는 데에서 기본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에 장자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사용했구요.

자 그럼 윤사에서 출제된 4번 문항을 봅시다. 갑은 장자, 을은 노자입니다.

이 문항의 정답률은 23%입니다. 생운 킬러 문항보단 정답률이 높지만 일반적으로 표본 수준이 더 우수한 윤사에서 23%의 정답률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게다가 평가원이 선지 구성을 ㄷㄷ/ㄴㄷㄷ로 냈다면 정답률이 한 자릿수가 나왔을지도 모르는 문항이었죠. 물론 仁의 의미 자체보단 학생들, 대다수의 강사들마저 예상하지 못한 노장 사상의 차이점을 묻는 선지가 출제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긴 합니다.

ㄱ선지는 개념을 한번이라도 배운 학생이라면 당연히 소거할 선지입니다. 1,2번 선지의 선택률은 합쳐서 5%를 겨우 넘기는 수준입니다. 그럼 95%의 학생들은 3,4,5번 중에 고민을 했겠죠? 4번 선지의 선택률은 60%입니다. 학생들은 시험장에서 ㄴ이나 ㄷ이냐를 고민했을겁니다.

ㄴ: ‘제물(齊物)을 통하여 정신의 절대적 자유에 도달한다.’ 갑은 장자고 을은 노자입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해설은 아니나, 본 칼럼의 목적이 노장 사상의 차이점은 아니니 짧게 직관적인 해설을 하자면 제물은 장자만 쓰는 표현이라 ㄴ선지는 노자의 입장으로 틀린 선지입니다.

ㄷ: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으며 성인(聖人)도 어질지 않다.’

天地不仁 以萬物爲芻狗 聖人不仁 以百姓爲芻狗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으며 만물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대하고, 성인은 어질지 않으며 백성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대한다는 의미의 구절입니다. 차별없이 대한다는 의미죠. 노자의 <도덕경>에 나옵니다.

‘성인은 어질지 않다’ <<< 이 문장에서의 어질다(인)의 의미는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의미 중 두 번째 의미입니다. 차별적 사랑이죠. 성인은 백성과 사물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도가의 기본 사상에 부합합니다. 두 번째 의미인 차별적(분별적) 사랑은 유교에서만 쓰는 표현이 맞습니다.

윤리 과목에서 무지성 암기는 큰 독입니다. 특히 한자를 사용하는 동양 철학에서 더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에 첨부한 문항을 봅시다. 연계 교재와 평가원 기출 문제집을 꼼꼼히 풀 학생이라도 처음 볼 문항이니 꼭 문제를 풀고 4페이지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11.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점]

갑: 오늘날 천하의 사군자(士君子)가 마음 속으로 정말 천하의 이익을 진흥하고 천하의 해를 제거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운명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힘써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자면 명(命)이란 폭군이 만든 말이며 곤궁하게 될 사람들이 추구하는 술(術)이지 인(仁)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다.

을: 천(天)을 추앙하며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어찌 천을 물(物)로 여기어 그것을 기르고 제어하는 것에 견줄 수 있겠는가? 천명(天命)에 순종하여 그것을 찬미하는 것이 어찌 천명을 제어하여 이용하는 것에 견줄 수 있겠느냐? 천시(天時)를 간절히 바라면서 천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어찌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견줄 수 있겠는가?

병: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다하면[盡其心] 본성을 알게 된다. 자신의 본성을 알게 되면 천(天)을 알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배양하는 것이 곧 천을 섬기는 방법이다. 단명과 장수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수신(修身)함으로써 천명(天命)을 기다리는 것이 곧 안심입명(安心立命)의 방법이다.

- ① 갑은 군자(君子)가 가까운 이에게 돈독하게 하면 백성들 사이에 인(仁)한 기풍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 ② 을은 형법(刑法)의 엄격한 준수를 통한 공정한 법집행이 국가 질서 유지의 최선의 방책이라고 주장한다.
- ③ 병은 인간의 성(性)을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인도할 것을 주장한다.
- ④ 을, 병은 규범으로서 예(禮)를, 통치의 차원에서는 왕도(王道)를 강조한다.
- ⑤ 갑, 병은 을과 달리 명(命)을 철저히 부정하고 인간의 주체적인 실천을 강조한다.

풀고 오셨죠? 위 문항은 2012년 시행 윤리 임용고시 기출 문제입니다. 당연히 수험생들이 풀어봤을리는 없겠죠. 답은 4번이고 사상가는 묵자/순자/맹자입니다.

갑 제시문을 추론하기 좀 힘들었을 겁니다. 묵자의 비명론(운명 부정)을 처음 들어보셨을테니까요. 그래도 '천하의 이익'이라는 유명한 키워드가 힌트네요.

여기서도 제시문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명(命)이란 폭군, 곤궁하게 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다. 인(仁)한 사람은 추구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묵자가 사용한 인(仁)의 의미는 1: 어질다입니다.

1번 선지가 왜 오답인지 봅시다.

'묵자는 군자(君子)가 가까운 이에게 돈독하게 하면 백성들 사이에 인(仁)한 기풍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밑줄 부분은 묵자가 비판하는 유교식 인(仁) : 별애를 의미합니다. 선지에 쓰인 인(仁)은 1: 어질다를 의미하고요. 별애를 한다면 백성들 사이에 어질지 않은 못된 기풍이 불겠죠? 나머지 선지들도 간략히 해설하겠습니다.

2번-순자가 아닌 순자의 제자들인 법가 사상가들(이사, 한비자, 상앙 등)의 입장입니다. 순자는 왕도 정치(예치)를 최선으로 꼽고 차선책으로 패도정치(법치)를 인정합니다. 망도정치보단 패도정치가 낫다는 논리죠. 패도정치를 전면 부정하는 맹자와의 차이점인데 이것도 미출제내용으로 윤사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3번-맹자가 성선설인거 모르면 지금 이 칼럼 읽을 때가 아니라 개념 인강 들으러 가세요. 성무성악설을 주장하는 고자의 입장입니다

4번- 유교니까 예를 실천해야하고, 맹자와 순자 모두 왕도정치를 이상향으로 바라봅니다.

5번- 묵자는 그렇다 쳐도 맹자의 입장은 아니겠죠? 맹자는 자연천(하늘을 그저 비 내려주는 분무기로 보는 입장)이 아니라 도덕천(인간에게 도덕적 본성을 내리고 인간사에 감응하는 존재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에 제시문에서도 천명(天命)을 주장하고 있네요.

앞으로 문제 풀 때 인(仁) 혹은 '어질다'가 나오면 앞서 말한 두 가지 의미 중 어떤 의미로 쓰인 건지 꼭 생각을 하면서 봅시다! 칼럼 읽고 추가로 질문이 있다면 @unkicetic 으로 dm 주셔도 괜찮습니다. 본 칼럼의 내용이 아닌 윤리 학습법 등에 대한 질문도 좋습니다.

3월 모의고사 대비 자작 모의고사를 3월 17일 금요일 밤에 올릴 예정입니다. 과목은 생윤/윤사 모두 준비되어있습니다.